

옥소 권섭의 여행 체험과 〈영삼별곡(寧三別曲)〉의 시적 감흥*

신현웅**

〈차 례〉

1. 서론
2. 여행 출발 상황의 극화
3.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촉발된 감흥
4. 실체함으로써 여행의 가치 긍정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이 창작한 <영삼별곡(寧三別曲)>에 형상화된 감흥의 실체를 분석해 작품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있다. <영삼별곡>은 1704년 제천에서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여행 체험을 담은 기행가사 작품이다. <영삼별곡>의 서사를 1704년 여행 기록과 비교하면 서사의 여행 출발 상황이 실제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삼별곡>이 작가와 화자의 거리를 통상의 기행가사보다 멀리 두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점이 본 연구의 논의를 촉발한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삼별곡>에 진술된 여행 체험과 시적 감흥을 분석하여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영삼별곡> 서사를 중심으로 작품 속 여행의 출발 상황을 실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영삼별곡>의 서사는 당시 여행뿐만 아니라 이전의 여행 경험도 활용해 극화한 결과물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본사에 형상화된 시적 감흥의 실체를 분석했다. 분석은 품평과

* 본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9차 동계학술대회(2025. 2. 18.)에서 발표한 「옥소 권섭의 정동적 여행 체험과 <영삼별곡>」을 대폭 수정한 결과물이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탐승, 그것에 개재된 실경의 산수미 발견이라는 시각에 전인되지 않고 작품 자체의 진술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그 결과 본사의 중심에는, 제천에서 영월까지의 관습적인 노정과 대비되는,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비관습적인 노정에서 체험한, 예상치 못한 데에서 오는 즐거움의 표출이 놓여 있었다. 제4장에서는 한 편의 완결된 시적 텍스트로서의 <영삼별곡>의 특징을 제2장과 제3장의 결과를 종합해 정리하면서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로써 지금에 이르러서도 <영삼별곡>이 여전히 즐겁게 감상될 만한 작품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주제어 18세기, 기행가사, 개인, 실제 체험, 신체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이 1704년 제천을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여행 체험을 담아낸,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에 형상화된 감흥의 실체를 분석해 작품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 있다. <영삼별곡>은 시가사, 가사문학사에서 후기 기행가사의 변모를 보이는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주목에도 불구하고 주요 논의는 기행가사로서의 자연 인식과 표현 변화에 초점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편의 시적 텍스트로서의 <영삼별곡>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미진했다. 그런데 권섭의 여행 체험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영삼별곡>이 기행가사 율문 전통에 기대어 여행 체험을 진술한 ‘기행’가사에 그치지 않고 한 편의 완결된 율문 작품으로 창작된 기행‘가사’라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로 인해 <영삼별곡>이 지니는 시적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권섭은 18세기 초반에 여행을 전문적으로 한 사대부 문인이다. 권섭은 자신에게 산수벽이 있으며 그것을 온갖 일과 바꿀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다.¹⁾ 그는 산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름에는 두꺼운 속옷을, 겨

울에는 얇은 적삼을 입고서 봉당에서 노숙하기도 하며 여행을 다녔다.²⁾ 권섭의 여행 특징은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이다. 1709년에는 음력 2월 19일에 서울에서 출발해 6월 23일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총 133일 동안 3,900리를 여행했다.³⁾ 1733년에는 음력 6월 24일에 주천에서 출발해 7월 26일에 귀가하기까지 총 33일 가운데 12일은 머물고 21일은 이동하며 1,152리를 다녔다.⁴⁾ 권섭은 60여 년간을 이렇게 여행을 다녔다.⁵⁾ 그는 “일찍이 세속의 명리에 뜻을 버리고 평생 전국을 두루 다니며 탐승을 즐긴 여행가”였다.⁶⁾

권섭은 여행 체험을 기행문으로만 남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행지의 물상에 대한 품평도 풍부하게 남겼다. 1709년 여행을 다녀와서는 명승을 품평하는 <유상품제록(遊賞品題錄)>을 짓는다. 이어 <유상품제록>에 수록하지 못한 명승지를 <지명도리이문구적록(地名道里異聞舊蹟錄)>에 정리한다. 그는 각 지역의 명승지를 직접 다니며 품평하고 그 가운데에서 빼어난 것을 또 선별했다. 그의 기행시는 “여행지의 승경들을 한데 모아 명명”하는 집경시(集景詩)의 특징이 도드라지는데 이것은 “기행문에서 각 지역의 승경을 한데 모아서 품평하는 방식을 즐겼던 것과” 통한다.⁷⁾ 권섭

1) “吾性癖在於水石煙霞，世間百事無以易此.”，<내편(內篇)> 1, 「산록(散錄)」, 『옥소집(玉所集)』 권5(이창희, 장정수 역, 『옥소산록(玉所散錄)』, 다운샘, 2022, 82쪽).

2) “及欲求山，夏着厚襦，冬着薄衫，露宿於封堂.”，위의 글(위의 책, 179쪽).

3) “己丑二月十九日，發京城，(중략) (六月)二十三日，還京城，首尾一百三十三日，凡行三千九百白里.”，<주행총록(周行總錄)>，『유행록』 권2(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문경새재박물관, 2008, 24쪽).

4) “費三十三日，留二十日，行二十一日，爲一千一百五十二里.”，<동행일기(東行日記) 우(又)>，『유행록』 권3(위의 책, 238쪽).

5) “自成童而老壯，從內外父兄而遠遊。又或單僮匹馬而出，或一筇一鞋而去。七道山川，從心踏遍，今六十年.”<유행록(遊行錄) 자서(自序)>，『옥소집』 권8.

6)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 -옥소 권섭의 산수 기행-」,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 157쪽.

7) 강해선,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기행시문(記行詩文) 연구」, 『한국한시연구』 18,

의 품평 행위와 기록은 선행연구에서 권섭의 여행이 ‘탐승’(探勝)으로 규정되는 핵심 근거로 간주되었다.⁸⁾

품평과 탐승, 그것에 개재된 실경의 산수미 발견과 표현은 기행가사 <영삼별곡>을 분석하는 주요 시각이 되어 왔다.⁹⁾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권섭이 자연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 <영삼별곡>이라는 기행가사에 표현했는지 혹은 <영삼별곡>에 진술된 기행에 내재한 자연 인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영삼별곡>은 자연 인식과 언어(혹은 예술) 표현의 역사에서 실경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산수미 품평 등을 담아낸 후기 기행가사로 분석되었다. <영삼별곡>은 17세기를 지나며 자연이 ‘이법’[理]이 구현된 대상에서 ‘진경’[眞]과 ‘실경’[實]의 대상으로 확장되어 인식되어 간, 사대부의 자연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한 작품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이로써 <영삼별곡>에 대한 시가사적, 문화예술사적 의의는 다각도로 깊게 진행되어 <영삼별곡>의 가치는 충분히 드러났다.

문제는 선행연구의 성취가 ‘기행’가사로서의 <영삼별곡>에 기울어져 있어 학계에서는 기행‘가사’로서의 <영삼별곡>이 깊게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삼별곡>이 시적 감흥을 표현한 율문보다는 체험을 보고한 기행(문)이라는 데에 방점이 놓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류의 시각에서 <영삼별곡>에 대한, 유정선의 다음 세 가지 분석이 주목된다.¹⁰⁾ 첫

한국한시학회, 2010, 271~272쪽.

8) 황정일, 「玉所 權變의 山水 散文 研究 :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호석, 앞의 논문.

9)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7;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민족어문학회, 1993;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특징적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김현식,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창작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정어문』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째, 여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장인의 임소 방문이었으나 승려의 권유를 받아 떠나는 듯이 진술된다. 둘째, 주요 노정이 제시되는, 통상의 기행가사와는 달리 체험을 실감나게 진술할 때 지명이 활용된다. 셋째, 산수를 직접 목격하며 느끼는 정서적 체험을 중시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세 가지 분석은 <영삼별곡>이 여행을 보고하는 데에 목적을 둔 교술이라기보다는 감흥 표현에 중점을 둔 서정의 영역에 속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가리킨다. 여기에 본고의 문제의식이 놓인다. 본고에서는 작품에 표현된 감흥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러한 감흥을 표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권섭이 <영삼별곡>에 담아낸 감흥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704년 당시와 그 즈음의 여행 체험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작품 서사에 진술된, 여행의 출발 상황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창의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와 화자의 거리가 가까운 기행가사 일반에서 <영삼별곡>이 다소 벗어나 있는 지점이다. 물론 본사가 실경 체험을 다루고 있어 작가와 화자의 거리가 가깝지만 서사에 보이는 작품과 실제의 상이성은 <영삼별곡>의 작가와 거리를 통상의 기행가사보다 멀리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영삼별곡>에 표현된 시적 감흥의 실체에 접근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영삼별곡> 서사를 중심으로 작품 속 여행의 출발 상황을 실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에는 당시 여행 체험을 한문으로 간략하게 기술한 <자술년기(自述年紀)>,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동남행추기(東南行追記)>(<유행록(遊行錄)> 권3), <영삼별곡> 서사에 진술된 여행의 출발 상황과 유사한 <화양속리선승기(華陽俗離選勝記)>(<『옥소집(玉所集)> 권8)

10)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55~59쪽.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¹¹⁾ 이어서 제3장에서는 본사에 형상화된 시적 감흥의 실체를 분석한다. 분석은 품평과 탐승, 그것에 개재된 실경의 산수미 발견이라는 시각에 견인되지 않고 작품 자체의 진술에 집중하여 진행된다. 제4장에서는 한 편의 완결된 시적 텍스트로서 <영삼별곡>의 특징을 제2장과 제3장의 결과를 종합해 정리하면서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로써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도 <영삼별곡>이 여전히 즐겁게 감상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2. 여행 출발 상황의 극화

본 장에서는 <영삼별곡> 서사의 여행 출발 상황이 실재를 손질해 극화된 결과물임을 논의한다. 만약 <영삼별곡> 서사가 가사의 율문 전통에 맞추어 여행 체험을 진술한 결과가 아니라면 <영삼별곡>은 노정의 순서에 따라 기행 경험을 선별해 보고하는 기행문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삼별곡>이라는 한 편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서사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영삼별곡>은 가사 양식의 전형적인 4음 4보격 1행 기준 총 135행¹²⁾으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사는 여행의 출발 상황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제1행부터 제18행까지이다. 본사는 제천을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르러 삼척 관내 곳곳을 유람하며 느끼는 감흥을 노래한 부분으로 제19행부

11) 영인 자료를 편히 열람할 수 있도록 후의를 베풀어 주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산정보관 지윤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2) 총 135행 가운데 총 18행이 일실되어 총 117행만이 현재 확인이 가능하다. 이하 원문은 『추명지(推命紙)』(옛길박물관 소장) 수록 <영삼별곡>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의 연구 결과에 따른 비평본을 참조한다(신현웅, 「옥소 권섭의 기행가사 <영삼별곡> (寧三別曲)의 원전 비평」, 『국문학연구』 49, 국문학회, 2024).

터 제120행까지이다. 결사는 평생을 여행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노래한 부분으로 제121행부터 제135행까지이다.

아래는 총 18행의 서사 전문(全文)이다.

이 몸이 텃지간의	씩을 딛 전혀 업서
삼십년 광음을	흐롱하롱 보내여다
풍정이 호탕하여	물외에 연업으로
녹슈 청산의	분대로 돈니더니
저근덧 병이 드러	님장을 닷아시니
엇던 뒷절 중이	헌스도 흘세이고
쥬령을 느지 잡고	날드려 닐온 말이
네 병을 내 모르랴	슈석의 고향이라
춘풍이 완만하여	빅화는 거의 딴 제
산둥의 비 곳 개니	턴괴도 몹을시고
어와 이 사름아	철업시 누어시랴
청녀당 비야 잡고	갈대로 가자스라
결의 니러 안자	창을 브라보니
천풍이 건듯 불고	새소리 지" 꿔 제
시냇" 방초 길히	동협의 니어세라
아히종 불너내여	쌔 결닌 여원 물세
채직을 거더쥐고	임의로 노하 가니
삼" 가절이	새마춤 도흘시고

위의 서사에는 제천에서 여행을 출발하는 상황이 진술된다. 화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지내다가 병이 들어 두문불출(杜門不出)한다. 어느 해 삼월 봄에 뒷절 중이 화자를 찾아와 화자의 병이 천석고황(泉石膏肓)임을 알려주며 여행을 권유한다. 이에 화자는 창밖을 갑자기 바라보고 봄 풍경과 새 소리에 생동감을 느껴 아이종을 불러 말을

타고 여행을 나선다.

서사의 화자와 달리 권섭은 장인 이세필의 임소를 방문하고자 1704년에 제천을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으로 떠난다. 이세필은 1703년 음력 11월에 삼척부사에 제수되어 12월 4일에 임소로 떠난다.¹³⁾ 권섭은 이듬해 이세필의 임지 삼척을 방문하고자 음력 3월에 한식을 지내고 제천에 와 있는 삼척의 역마를 타고 제천을 떠난다.¹⁴⁾ 장인의 임소를 방문하는 데에 서사와 같이 급작스럽게 출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때 여행 기간은 음력 3월에 제천에서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르러 관아에 머칠을 머물렀다가 태백, 봉화, 안동, 영주 등을 거쳐 제천을 경유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한 달에 가까울 정도로 장기간이었다.¹⁵⁾ 이 여행을 준비하는 데에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서사를 이해하는 데에 노정의 성격도 주목된다. 장인 방문 목적, 여행 기간은 물론 <영삼별곡>의 창작 토대가 된 1704년 제천에서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아래 노정은 관습적이지 않다.

(1704년 3월 한식날 이후)제천 천남→영월 청령포→금강정(1박)→자연암→상동 이십천→운리촌(1박)→정선 마차치→곰골→별어곡(1박)→미상(1박)→삼척 뗏재→두타산 흑악사(1박)→무릉계곡 및 청옥산 일대→추암 촛대바위→삼척 관아¹⁶⁾

13) 『승정원일기』 숙종 29년(1703) 11월 1일자 기사, 동년 12월 4일자 기사(『승정원일기』 누리집). 이하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14) “甲申三月，過寒食於泉南，騎三陟馬，往婦翁龜川公任所.”, <동남행추기(東南行追記)>(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앞의 책, 294쪽).

15) 『백중력(百中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66-14; 전자영인자료)에 따르면 한식에 가까운 청명(淸明)이 1704년에는 음력 3월 4일(『대통력(大統曆)』이나 1일(『시헌력(時憲曆)』)이었다. 서울에는 그믐에 도착했다(“由泉南，還京城，月已晦矣.”, <동남행추기>).

16) 신현웅, 앞의 학술논문.

위에서 제천 천남에서 영월까지의 청령포, 금강정, 자연암 등 당대 명소를 들르고 영월 관아에 머무르는 관습적인 노정을 따른다. 이후 영월에서 땃재까지의 노정은 사대부 유람으로서 관습적이지 않다. 이후 땃재에서 청옥산을 경유해 삼척 관아까지의 노정은 관습적이다.

여행기와 고지도를 통해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관습적인 노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셋이 주요한 경로가 된다.¹⁷⁾ 첫째, 영월 관아에서 동쪽으로 남행하여 상동을 거쳐 태백을 지나 삼척에 이른다. 둘째, 영월 관아에서 동쪽으로 북행하여 정선 관아를 거쳐 두타산을 지나 삼척에 이른다. 셋째, 둘째의 경로를 따르되 정선 관아에서 강릉을 거쳐 삼척에 이른다.¹⁸⁾ 이 셋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역원이나 관아 혹은 절에서 묵거나 명소로서 누정에 들러 풍광을 감상하는, 관습적인 노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동 이십천, 윤리춘, 정선 마차치, 별어곡을 거쳐 땃재에 이르는, 1704년 노정은 비관습적이다.

권섭이 이 노정을 따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노정과 유사한 노정이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1662년 여행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래는 1662년에 허목이 영월에서 두타산에 이르는 노정이다.

영월 금강정→상동→석령→정선 마차령→별어곡→석탄→삼척 역둔→백전¹⁹⁾

17) 확인한 고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영인자료로서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광여도(廣輿圖)』(古4790-58), 『대동여지도』(奎10341), 『동여도(東輿圖)』(奎10340),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조선지도(朝鮮地圖)』(奎16030), 『지승(地乘)』(奎15423), 『청구도(靑邱圖)』(古4709-21), 『청구요람(靑邱要覽)』(古4709),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41) 영월, 정선, 삼척 지역 및 1872년 『삼척부지도』(奎10648), 『영월지도』(奎10666), 『정선지도』(奎10659).

18) 권섭은 1709년에 이 노정을 따라 제천에서 출발해 영월 관아, 평창, 정선 관아, 강릉을 거쳐 삼척 관아에 이른다. 『유행록』 권2의 <유상품제록(遊賞品題錄)>과 <지명도리이문구적록(地名道里異聞舊蹟錄)> 참조(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앞의 책, 번역 24~25쪽; 원문 전사 64~65쪽).

19) 허목, “태수 윤순거(尹侯舜舉)와 함께 금강정(錦江亭)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배를 타고 정자 아래 석벽을 둘러보았다. 상동(上東)의 골짜기 어귀

위의 노정 가운데 금강정에서 상동, 마차령(마차치)을 거친 노정은 앞서 제시한 권섭의 노정과 일치한다.²⁰⁾ 허목은 1660년부터 1662년까지 삼척부사로 재임하며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세우고 삼척읍지 『척주지(陟州誌)』를 편찬한다. 현전하는 두 종의 삼척 두타산 유산기 가운데 하나인 <두타산기(頭陀山記)>를 지었다. 과거로 소급할수록 먼 지역까지의 여행이 쉽지 않으므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번의 여행에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읍지, 지리지, 유기 등 여행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읽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권섭이 『척주지』, <두타산기>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권섭은 허목의 1662년 여행 기록을 구해 보았을 법할 것이다.

허목의 여행 기록을 따랐든지 그로 인해 알려진 노정에 따랐든지 영월에서 상동 이십천을 거슬러 올라 정선 마차령을 넘어 별어곡을 거치는, 관습적이지 않은 노정은 권섭이 여행을 주의를 기울여 준비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장인 방문 목적, 장기간의 여행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영삼별곡> 서사의 여행 출발 상황이 실재를 손질해 창작되었다는 가설의 타당성

부터 석령(石嶺)까지는 40리인데 모두 높은 절벽과 푸른 시내였으며 이따금 흰 자갈 돌에 깊은 못이 있었다. 재를 넘으면 평창(平昌) 경계이고 또 30리를 올라가면 마차령(摩嵯嶺)인데 정선(旌善)의 경계이며 산골짜기가 깊고 험했다. 재를 내려오면 큰 시내가 골짜기 어귀를 지나가는데 이것은 태백산 살내(薩奈) 앞쪽 시내의 하류이다. 큰 시내의 산길을 따라가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깊은 산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고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 모여 있어 한낮에도 해가 비치지 않는다. 석동(石洞)에는 이따금 깊은 못이 있고 나무는 자단(紫檀)과 황양(黃楊)이 많으며 이름 모를 새소리가 들렸다. 역탄(易呑)에 이르면 삼척(三陟)의 경계이고 백전(栢田)이 있다.”, <임인정월기행(壬寅正月記行)>, 『기언(記言)』 24(한국고전번역원 번역).

- 20) <영삼별곡>에서 일실된 노정을 <동남행추기>로 보완하더라도 권섭의 노정에서 별어곡과 땃재 사이를 재구하기 어려우므로 별어곡 이후의 노정이 위와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지 않는 한,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노정을 폭넓게 조사하여 권섭과 허목의 노정이 세심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된다.

흥미롭게도 서사와 비슷한 출발 상황은 1701년에 화양동과 속리산 일대를 여행한 체험을 담은 <화양속리선승기(華陽俗離選勝記)>의 아래 부분에서 발견된다.

올해 2월에 내가 서울에서 (천남으로) 돌아와 제천 선산에서 한식을 지낸 후에 산 아래 마을에서 수십일을 머무르며 연못가에 작은 정자를 짓고 온종일 마음을 읊조리고 거닐다가 북쪽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위 계곡을 발견했는데 몹시 기쁘고 마음이 흡족했다. 어느날 정성운(鄭聖運, 字: 泰河) 군이 원림에서 찾아와 산수에 대해 말하며 청량산의 승경을 대단히 칭찬하자, 기이하고 빼어나며 고요하고 깊은 형상이 이미 내 눈 앞에 절로 펼쳐졌다. 먼 생각이 바람 같이 일어나 마음이 절로 제어되지 않아 여장을 곧장 꾸리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매우 급작스러워 동반할 사람이 없어 너무 적적했다. (그러던 차에) 태백산 승려 계관(戒觀)이 있어 내 서재에 와서 머물기를 이미 수 개월이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산수를 좋아하니 그를 불러다 (여행을) 권유하자 (그는 내 제안을) 바로 승낙했다. 마침내 그와 날을 잡고 (산 아래 마을에서) 나와 황강으로 돌아가 백부를 곁에서 모시며 열흘 여를 머물며 사촌 형님과 함께 우암 선생님의 책 서너 편을 교감하다가 틈을 타서 (백부께) 삼가 아뢰었다. “산화가 이미 피고 봄빛이 밝게 흐르니 원컨대 청량산에 한번 들어가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백부께서는 기뻐하시며 (내 청을) 허락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산을 한 번 보았는데 그리 볼 것이 없었다. 속리산이 본디 소금강이라 불리는데 여기에 이르면 갈 수 있건만 어찌 이를 두고 멀리 가려느냐?” 이어서 그림 한 폭을 손수 그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정상에 한번 올랐는데 조용히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한 게 한이다. 네가, 내 보지 못한 곳까지 살살히 둘러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다오.” 내가 대답했다. “삼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²¹⁾

21) “(辛巳)今年二月, 余自京城來, 過冷節於堤川松楸, 仍留山下村數十日, 作小亭於蓮沼之上, 日哦其中, 杖屨之間, 偶得小巖溪於稍北, 跬步地方, 怡悅適意. 忽鄭

위의 인용문에서 권섭이 속리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권섭은 한식을 지낸 후에 제천 선산 아래 마을에 머무르며 못가에 정자를 짓고 산책을 하며 수십 일을 지낸다. 어느날 정성운(鄭聖運)이 권섭을 방문해 청량산 승경을 예찬한다. 권섭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 앞에 펼쳐지는 승경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 자리에서 여행을 떠나려했지만 함께 갈 사람이 없어 어쩔 줄 모르던 차에 권섭의 서재에 와서 수개월 동안 머문 승려 계관(戒觀)에게 동행을 권유한다. 계관이 동행을 승낙하자 서로 여행 날짜를 잡는다. 이후 황강으로 돌아와 백부를 도와 송시열의 책을 열흘 여 교감하다가 백부에게서 속리산 여행을 허락받는다.

속리산 여행 출발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여행을 아무리 빨리 떠나고 싶다고 한들 동행자를 구하고 그와 약속을 한 후에 당분간 떠날 수 있도록 일상의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영삼별곡> 창작의 토대가 되는 1704년 여행이 서사의 상황처럼 급박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추론된다. 장인 임소 방문, 관습적이지 않은 경로, 한 달에 가까운 장기간의 여행은 속리산 여행보다 준비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을 벗삼아 일상을 보내다가 여행이 타인의 발화로 촉발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여행의 떠나고 싶은 마음이 급작스럽게 들었다는 점이다. 여행 출발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 꽃봉오리 터지듯 일어난 감흥과 여행 결심 등은 <영삼별곡> 서사와 유사하다. 권섭이 속리

君泰河 聖運自月林來，訪話山水，盛稱清涼之勝，其奇秀窈窕之態，已自羅列於眼中矣。遐想飄然，意不自制，卽理屐戒行，顧倉卒無與爲伴者。殊甚寂寥，有太白僧戒觀來住余齋菴，已數月矣，年少而好山水，招諭之，卽諾。遂與之約日，而歸出到黃江，留待伯父側十餘日，與從伯氏校尤翁書四五編，乘間稟告曰：‘山花已發，春光正爛，願一入清涼山，選勝而歸。’伯父怡然而許之，復下教曰：‘吾嘗一見茲山，無甚可觀。俗離素稱小金剛而此可兩日至，胡舍此而遠爲？’仍手寫一幅圖而授之曰：‘吾前日一登其顛而恨未得從容探討也。爾，其盡訪我所未見，歸以語我來。’小子對曰：‘謹當如教。’ 권섭, <화양속리선승기(華陽俗離選勝記)>, 『옥소집』 권8, 8장 앞쪽~뒤쪽.

산 여행 출발 경험을 <영삼별곡> 서사에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서사의 여행 출발 상황은, 두문불출하는 화자가 승려의 갑작스러운 권유로 인해 여행을 당장 떠나는 듯이 극화한 결과물이 된다. 이 극화에는 이전의 여행 경험이 개입되고 있었다. 이는 <영삼별곡>이 가사 율문 전통에 맞춰 1704년 여행 그대로 혹은 선별해 진술한 작품이 아니라 특정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행을 재료로 삼아 손질하고 더 나아가 창작한 텍스트라는 점을 뜻한다. 특정 주제를 탐승, 탐문으로 간주하기는 다소 어려울 듯싶다. 왜냐하면 서사에는 선행 연구에서 그간 주목해온 탐승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본사에 진술된 감흥의 실체를 분석해 <영삼별곡>의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한다.

3.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촉발된 감흥

본 장에서는 <영삼별곡>의 주제를 파악하고자 작품에 표현된 시적 감흥의 실체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본사 제38행부터 제77행까지로서 노정은 영월 상동 이십천부터 삼척 두타산 땃재까지이다.

이외의 본사는 다음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본사 서두의 영월 장릉, 금강정 유람 부분에는 대상에 대한 관습적인 감흥이 표현되어 있다. 제78행 이후 청옥산 등반 부분은 <두타산기>로 형성된 기대 지평에 의한 감흥이 지배적이고 삼척 관내 유람 부분은 일실이 심하다. 물론 특정 부분을 제외하지 말고 작품 전체를 분석해야 시상 전개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도 ‘영삼별곡’인 만큼 <영삼별곡>의 본사는 영월에서 삼척에 이르는 여행 체험이 중심에 놓인다. 그러므로 권섭이 새롭게 드러내려던 감흥의 정체를 깊이 있게 분석해 낸다면, 부분의 전체성이

라는 시각에서 작품의 주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상동 이십천 유람 경험, 정선 곰골 경유 경험, 별이실 노숙과 냇가에 빠진 경험, 땃재 등반 경험 등을 편의상 ①, ②, ③, ④로 지정하여 차례로 분석한다.

첫째, 아래는 상동 이십천 유람 경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부분(①)으로서 제38행부터 제45행에 해당한다.

① 머흔 내 스므 구벽	건너고 건너 가니
청산은 은〰 ㅎ고	벽계수 들렀느디
운리촌 뽕 밋 ㅁ을	일흠도 도흘시고
산가의 손이 업서	개와 뚝 썬이로라
귀오리 데친 밥의	꽃나물 슬마내여
포단 퍼 안쳐 노코	슬토록 권ㅎ순다
어와 이 빅성들	기특도 흔저이고

상동 이십천 유람 경험을 진술한 ①의 중심에는 화자가 스무 굽이의 내를 건너 운리촌이라는 마을에 도착해 받은 식사 대접에 대한 감흥이 놓인다. 벽지인 운리촌에는 개와 닭만 평화로이 있을 뿐 오가는 나그네는 거의 없다. 화자는 이곳에서 귀리 데친 밥에 삶은 꽃나물로 식사 대접을 받는다. 식사는 영월 관아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화자에게는 약소하겠지만, 산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하여 포단을 퍼 정성껏 차린 것이 된다. 화자는 이러한 정성에 감동을 받아 산마을 사람들을 기특하다고 여긴다.

제1행에서 운리촌은 속세에서 벗어난 장소로 표현된다. ‘스무 굽이의 험한 내’는 이곳이 금강정이 있는 읍내에서 멀다는 거리감과 더불어 일반 사람이 쉽게 들르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형상화한다. 이어 ‘건너다’의 동사 접어 표현을 통해 운리촌은 ‘스무 굽이의 험한 내’가 환기하는 첩첩산중의

산마을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제2행부터는 속세와 거의 단절된 윤리촌이 평화롭고 아늑한 장소로 형상화된다. 스무 굽이의 험한 내를 건너 들어왔다면 산세가 험한 골짜기를 마주하리라 기대되지만, 그곳의 산세는 험하지 않고 맑은 물이 둘러 흐른다. 그곳은 절세(絶世)의 평화로운 장소이다. 마치 물길을 따라 거리도 모른 채 멀리 들어온 곳에서 도화원을 마주하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화자는 이곳에서 산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스러운 식사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윤리촌은 이상향에 가까운 장소로 인식되었다.

화자의 윤리촌에 대한 인식은 작가 권섭이 아래와 같이 당시 여행을 하면서 상동을 무릉도원으로, 그곳 사람들을 순박한 사람으로 표현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동은 깊고 한적하여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뽕나무와 삼대가 우거져 별천지를 이루었는데, 때맞춰 비와 이슬이 내렸고 사람과 문물이 순박하여 사나운 짐승도 길이 드니, 무릉도원과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다.²²⁾

권섭은 영월읍에서 동강을 건너 상동 입구에서 40리 길로 스무 굽이의 내를 건너며 이곳을 별천지, 무릉도원에 준하는 곳으로 느낀다. 그런데 동일 지역에 대한 한문 기록은 풍광과 인상을 서술하는 데에 초점이 놓이고, 가사 진술은 ‘산마을 사람의 기특함’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놓인다. 곧 <영삼별곡>에는 작가가 윤리촌에서 받은 정성스러운 환대への 놀라움이 화자를 통해 초점화되어 진술된다. 여기에서 스무 굽이의 험한 내를 힘겹게 건너며 깊은 산골로 들어갈수록 숙식을 다소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이 심해지다가, 아늑한 풍광의 산마을에 들어서서 예상치 않은 환대를 받아 느낀 감격이 포착된다. 이러한 경험이 상동과 윤리촌을 별천지, 무릉

22) <동남행추기>(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앞의 책, 288쪽).

도원으로 인식되게 한 근원이 될 것이다. 곧 승경이 환대라는 인간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 아래는 정선 곶골 경유 경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부분(②)으로서 제47행부터 제53행에 해당한다.

② 마차치 □□□□	곶의골 내려가니
십니 장곡의	절벽은 도커니와
서덜길 머흔 곳의	냥협이 다하시니
머이 우 조각하늘	보일락말락 흥노고야
밀거니 득럭거니	곳드르며 나간말이
별이실 외썬 므을	히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의 자리 보아	더새고 가자스라

②의 곶골 경유 경험의 중심에는 화자가 마차치를 넘고 곶골 10리 협곡을 넘어 별이실에 도착하기까지의 감흥이 놓인다. 윤리춘을 떠나 마차치를 넘어 곶골을 내려간다. 곶골은 10리에 걸쳐 돌로 이루어져 험하고 하늘이 보일락말락 높다란 절벽이 좁게 마주 선 골짜기이다. 화자는 이곳을 동료와 함께 서로 밀고 당기며 애써서 한참을 힘겹게 걸어 별이실이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그런데 잘 곳을 정하기도 전에 해가 일찍 넘어가 봉당에 잠자리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다.

②에서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즐기려면 험하고 좁은 서덜길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대조적으로 진술된다. 전자에 대한 진술은 총 1행, 후자에 대한 진술은 총 3행으로서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는 어려움을 진술하는 데에 초점이 놓인다. 제3행과 제4행에서 10리 곶골은 아름답지만 돌이 가득해 걷기가 쉽지 않은 데에다가 험하기까지 하며, 하늘이 보일락말락하는 좁고 깊은 골짜기로서 햇볕이 덜 드는 다소 어두침침하게 표현된다. 이어서 제5행에서는 밀고 당기고 돌아가는 행위를 통해 곶골

의 오르락내리락하고 굽이진 모습이 형상화된다. 이로써 곱골 서덜길 타기의 어렵고 답답한 감정이 진술된다. 이 감정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난처함으로 전이되며 증폭된다. 힘을 다해 험한 골짜기를 벗어나 마을을 발견해 기뻐했지만 숙소를 제대로 잡기 전에 해가 지고 마는 난처함이 ‘해가 어찌 빨리 넘어가는가’라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강조되어 표현된다. 마지막 행에서는 봉당에 임시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어찌할 수 없음이 청유형으로 표현된다.

셋째, 아래는 별이실 노숙과 냇가에 빠진 경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부분(㉓)으로서 제54행부터 제59행에 해당한다.

㉓ 밤등만 사립 밧기	긴 바람 내려라며
샷기 곱 큰 호랑이	목 그라 우는 소리
산골의 울허 이서	괴염도 홀난홀사
칼 빼허 것희 노코	이 밤을 계유 새와
압내희 싸딘 오슬	겹 따서 손의 쥐고
긴 별오 도로 드러	별썰의 띄야 집고

㉓의 별이실 노숙 경험과 냇가에 빠진 경험의 중심에는 깊은 산골에서 노숙하며 느끼는 두려움이 놓인다. 화자는 밤새 칼을 빼서 옆에 두고 선잠에 든다. 선잠의 원인은 긴 바람에 숲이 일렁이는 소리에 호랑이와 곰이 번갈아 내는 포효가 산골에 울리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떨며 밤을 보낸 화자는 아침이 되어 짐을 꾸려 떠났다가 옷을 앞내에 빠뜨리는 바람에 길을 되짚어 마을로 와서 벌불에 말려 여행길에 다시 오른다. 화자가 옷을 앞내에 빠뜨린 이유는 밤새 선잠을 자며 느낀 두려움에 허둥지둥 나섰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인용 부분의 중심 정서는 두려움이라 하겠다.

㉓은 ㉒의 어려움, 답답함, 난처함의 시상을 두려움으로 이으면서도 허둥거리다가 옷을 앞내에 빠뜨려 마을로 다시 돌아와 옷을 벌불에 말리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의 진술로 인해 시상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부분

이다. 이러한 진술은 두려움을 일으킨 상황과 두려움을 느낀 화자를 어지간히 희화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의 시상 전개를 정리하자면, 관습적이지 않은 노정을 선택한 감정은 윤리촌의 환대로 인해 한껏 긍정적으로 고양되었다가(①) 10리 곰골의 서덜길을 힘겹게 타고나서 봉당에 임시 잠자리를 마련해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여 부정적으로 전환되어(②) 골짜기의 매서운 바람 소리와 맹수의 포효로 밤새 두려움에 떠는 경험으로 인해 심화되었지만 앞내에 옷을 빠뜨린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상황과 감정이 다소 희극적으로 처리되면서 긍정적으로 전환된다. 낮선 환경과 경험이 더 이상 낮설지 않게 되며 긴장이 이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낮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긴장과 이완을 즐겁게 느끼는 작가 의식이 포착된다.

넷째, 아래는 땃재 등반 경험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부분(④)으로서 제 65행부터 제77행에 해당한다.

④	턴변의 ㄱㄹ진 뵈	대관녕 니어시니
	위티코 뉘은 땃재	축도란 이러턴가
	하늘의 도든 별을	저기면 문질노다
	망〃 대양이	그 알피 둘러 이셔
	대디 산악을	일야의 혼드는 듯
	밋 업슨 큰 굴형의	흔업시 빠힌 물이
	만고의 흘글 ㄱ티	영툭이 잇뎡턴가
	턴디간 장흔 경계	반남아 물이로다
	아마도 저 괴운이	무어스로 삼겼느고
	성인을 언제 만나	이 니를 못즈오리
	(일실)	
	(일실)	
	관음의 도섭인가	귀신이 식어신가

④의 땃재 등반 경험에 대한 감흥의 중심에는 땃재에서 경험하는 자연에 대한 경이감이 놓인다. 화자는 굽이굽이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고 골짜기를 타며 며칠을 지내다가 두타산 땃재에 이른다. 땃재에서 바라보는 두타산의 능선은 저 멀리 끝없이 뻗어나간다. 능선은 높다높아 하늘의 별을 만질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두타산에서 멀리 보이는 동해는 한없이 넓다. 화자는 상상력을 넘어서는 길고 높고 넓은 자연을 바라보며 경이감을 감추지 못한다. 경이감은 관음의 변덕인지, 귀신이 씌어서인지라는 놀라움의 표현으로 인해 심화된다. 이러한 경이감은 감탄형 종결어미와 감탄에 가까운 평서형 종결어미의 잦은 사용으로 표현된다.

경이감은 자연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는 기대 지평의 변화에서 연유한다. 땃재에서 바라보는 끝없는 산맥을 보며 험한 길의 전범인 축도(蜀道)를 떠올리는 데에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성된 험한 길의 기대 지평이 실체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환된다. 두타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세계 인식에 대한 지평도 전환된다.

<자술년기>에서는 1704년 이전에 권섭은 평양이나 삭녕에서 서해를 바라보았고 그것도 높은 산에서 서해를 바라본 경험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다의 규모나 형상, 바다와 육지의 관계에 대한 기대 지평은 평지나 구릉에서 서해를 바라본 경험에서 형성되었겠고 혹은 문학적 상상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겠다. 그러한 점에서 해발 810m의 땃재에서 두타산으로 올라 바라보는 동해의 망망함은 바다의 규모나 형상, 바다와 육지에 대한 지평의 전환으로 이어졌겠다. 지평의 전환으로 인한 놀라움이 별을 만질 듯하다는 과장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인, 관음의 변덕, 귀신에 씌움을 호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다.

이상의 <영삼별곡> 본사 일부 ㉠~㉣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대에 느낀 감사, 낯선 장소에서 느낀 긴장과 이완, 눈앞에 마주한 실풍경으로 인해 기대 지평이 전환되는 놀라움이 발견되었다. 이는 ‘실제 체험이 불러일으

킨 감정, ‘신체에 펼쳐진 물상(物象) 혹은 세계’로 정리된다. 인간을 의식과 신체를 가진 동물이라 한다면, 예상은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정신 활동이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은 ‘의식 속에서 예상되지 못한’이 되며 예상치 못한 감사를 느끼게 한 현상은 의식의 밖인 현실에서 일어난, 신체적 경험이다. 장소에 대한 낯센도, 특정 장소에 대해 의식에 이미 형성된 관념으로 환기되는 낯익음이, 신체로 경험하는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낯선 장소에서 느낀 긴장의 이완은, 신체로 경험한 현실로 인해 전환된 지평이 의식에 자리잡음으로써 현실과 의식의 거리가 줄어들며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 이에 <영삼별곡>의 주요 본사에 진술된 시적 감흥의 실체는 탐승, 탐문의 즐거움이라기보다 관습적이지 않은 노정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에 느낀 즐거움으로 드러난다. 이는 관념의 확인보다 현실의 체험에서 발원하므로 신체로 세상을 오롯이 마주하는 즐거움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자료로 삼아 <영삼별곡>의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함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4. 실체함으로써 여행의 가치 긍정

본 장에서는 제2장의 서사, 제3장의 본사 일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삼별곡>의 주제와 창작 의식을 분석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영삼별곡>의 서사는 천석고황이 든 화자가 봄날의 풍경에 이끌려 갑작스럽게 여행을 출발한다는 내용이다. 본사에서는 제천에서 영월까지의 관습적인 노정과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비관습적인 노정이 구분되어 후자를 따라 여행하는 동안에 느끼는 즐거움을 표출하는 데에 중심이 놓인다. 이 즐거움은 예상치 못한 경험과 그 속에서 일어난 기대 지평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이제 서사에서 본사에 이르는 사상 전개를 고려하면서 결사를 분석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우선 파악한 후에 창작 의식에 접근해 본다.

아래는 결사 전문(全文)으로서 제121행부터 제135행까지이다.

당검을 빼쳐 내어	손 속의 거더쥐고
긴 노래 한 곡조를	목 노하 붙은 말이
산호 벽슈현의	브람의 비겨 안자
니적선 풍치를	다시 만나 볼 거이고
당경성 붉은 빗치	기 아니 괴룻던가
태백산 김흔 속의	게나 아니 가 잇는가
오르며 느리며	슬꺾장 헤다히니
어와 현스홀샤	내 아니 허랑흐나
뉴하쥬 그득 부어	들빳을 섯거 마셔
홍금이 황낭흐니	저기면 놀리로다
빅년 텃디의	우락을 모르거니
일몽 진환의	영육을 내 아더나
퍼랑이 초메토리	다 써러 불이도록
산님 호히예	막음곳 노니면서
이령성 저령성 구다가	아므리나 흐리라

위의 결사에서는 ‘긴 노래 한 곡조’라는 시구로 본사의 시상이 집약된(제1~2행) 후에 이백을 환기하고(제3~6행) 나서 화자의 감흥을 진술하는(제7~15행) 순서로 시상이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첫 두 행에서 화자가 장검을 꺼내 쥐고 노래를 한 곡조 부른다는 자기 모습을 진술하며 결사가 시작한다. 긴 노래는 시상 전개상 장가(長歌), 곧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여행 체험을 노래한 본사로 이해된다. 이로써 본사에 진술된 여행 체험 진술이 장검을 꺼내 쥔 모습에서 환기되는 ‘호방’이라는 정서로 종합된다.²³⁾

23) 유정선은 결사의 정취를 “매우 이완되고 호방하고 쾌기어린 흥취가 난만하다”라고

호방의 정서는 산호 벽수현의 바람을 맞으며 이적선(李謫仙)이 상기됨으로써 신비하고 자유로운 정서로 전환된다. 자유로운 정서는 결어까지 유지된다. 화자는 산호 벽수현에서 서쪽을 바라본다. 서쪽에는 태백산이 있고 그 위 하늘에는 장경성이 떠 있다. 이는 벼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을 유람한 이백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태백산은 이백의 자(字)인 태백(太白)과 동명(同名)이며 장경성은 태백성으로서 이백의 자(字)가 태백인 연유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백의 모친은 장경성이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이백을 잉태했다고 한다. 이백의 호방하고도 자유로운 삶은 중국의 태백산과 삼척 서쪽의 태백산이 동명(同名)으로서 겹쳐지며 화자의 여행으로 전이된다. 이어서 화자는 자신의 여행을 회상하며 화자 앞에 놓인 술 잔을, 이백이 태산에서 선녀가 건내주어 마셨다는 ‘유하주’(流霞酒)로 지칭하며 이백과 같이 산림(山林)과 호해(湖海)를 두루 다니며 자유롭게 호방하게 살아가겠다고까지 선언한다.²⁴⁾

여행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선언은 작자 권섭의 선언으로도 이해될 만하다. 권섭이 별세하기 2년 전, 1757년에 87세의 나이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경도를 유람하기까지²⁵⁾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

분석하고 있다(유정선, 앞의 책, 58~59쪽). 이러한 자유로운 정취는 흥이 일러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는, 서사의 내용과 수미상응한다.

- 24) 익명의 심사위원은 결어 “이렇성 저렇성 구다가 아프리나 흐리라”에서 체념적, 자조적 어조를 읽어냈다. <영삼별곡>의 제12행 “이 몸이 던디간의 뵈을 디 전혀 업서/삼십년 광음을 흐롱하롱 보내여다”만 보자면 세상에 전혀 쓰일 데 없다는 자술은 부정적으로 이해될 만하다. 그런데 작품 전반에서 여행의 즐거움이 강조되며 권섭이 여행에 폭 빠져 살았다는 생애를 고려한다면 제12행은 사대부가에서 출사를 우선하는 통념에 천석고황을 대조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수사로서 이해된다. 그래야 서사의 시상이 여행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본사로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그렇다면 결어를 포함한 결사는 긍정의 시선으로 종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어에서 체념적, 자조적 어조를 읽어내는 것은 작품의 시상 전개, 권섭의 삶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출사를 우선하여 긍정하는 의식을 전제하고 옥소의 삶에 접근한 감상으로 이해된다.

- 25)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앞의 책, 364~365쪽.

한 시점이 1701년 속리산 여행 혹은 그 이후 1704년에 한 달에 가까운 여행을 하고 나서이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서사에서의 여행 출발 상황의 극화를 감안한다면 화자의 선언도 작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작품의 실재에 더욱 합당할 듯하다. 이와 관련해 이백(李伯)의 <유태산(遊太山)> 총 6수 중 오언배울 제1수의 아래 제13구부터 제20구를 보자.

높히 올라 봉래 영주 멀리 바라보니	登高望蓬瀛
금은대가 떠오르는구나.	想象金銀臺
천문에서 긴 파람 부니	天門一長嘯
만리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누나.	萬里清風來
선녀 서너 명이	玉女四五人
지상으로 가뻐이 내려오더니	飄飄下九垓
웃음 머금고 흰 손을 들어	含笑引素手
유하주 한 잔을 내게 권하네	遣我流霞杯 ²⁷⁾

위 인용은 화자가 태산의 천문에서 긴 휘파람을 불자 맑은 바람이 불어오며 서너 명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화자에게 신선의 술인 유하주 한 잔을 건넨다는 내용이다. 휘파람을 한 편의 노래로서 이해한다면 산호 벽수현의 바람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으로, 유하주는 선녀가 건넨 술로도 이해된다. 곧 결사는 이백의 태산 유람시를 배경으로 삼아 영월에서 삼척까지의 여행에 호방하고도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호방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하겠다는 선언은 한 편의 가사 작품의 결어로서

26) 홍성옥은 <자술년기>와 『유행록』의 기록으로 권섭의 여행 경험을 정리하며 권섭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를 1703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화양속리산승기>가 누락되어 있다(홍성옥, 「권섭의 산수 유행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85쪽; 『遊行錄』을 통해 본 권섭의 山水遊覽과 심미의식, 신경숙 외 7명,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72쪽).

27)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권16(『사고전서』 전자판).

우연하게 출발해 비관습적인 노정을 따르는 여행에서 얻는, 다음의 주요한 즐거움과 놀라움이라는 감흥의 가치를 높이며 사상을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

첫째, 예기치 않은 환대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권섭은 영월 읍내를 벗어나 관습적이지 않은 노정을 따라 40리 길의 상동 이십천 물길을 힘겹게 건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두려움이나 막막함을 느꼈겠다. 그러다가 나그네 하나 없을 정도의 한적한 산마을 사람의 환대로 인해 두렵거나 막막한 감정이 누그러지며 앞으로의 여행에 힘을 내었을 만하다. 당시 여행 경험 가운데 환대의 경험이 선별되어 화자를 통해 작품에 그 감사한 마음이 표현되었으므로 환대 경험은 권섭에게는 각별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적한 산마을 사람은 권섭이 사대부인 줄은 알아도 명문가의 후손임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는 권섭도 알고 있었겠다. 이러한 상황에 환대가 불러일으킨 감사함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았다는 즐거움으로 이해된다. 실존적 행복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행복은 권섭에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과 걱정을 줄이고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약속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섭이 여행을 다니며 도움 받은 고마움을 『유행록』 곳곳에 자세히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습화되지 않은 경로에서 놀라운 풍광을 눈앞에서 마주한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알려지지 않은 산마을인 윤리촌의 풍광에서 상상 속의 별천지나 도화원과 같은 아늑함을 느끼고, 사대부의 주요 유람 경로가 아닌 곰골 협곡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한다. 그런데 이들 경로는 관습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위험하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곧 윤리촌의 아늑함은 40리의 험한 상동 이십천을 힘겹게 건너야 느낄 수 있고 곰골의 아름다움은 하늘이 보일락말락하는 좁은 협곡의 10리 서덜길을 힘겹게 타야만 감상할 수 있는 풍광이다.

험한 경로에서 승지(勝地)나 기지(奇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화양속리선승기>의 아래 구절에서 발견된다.

무릇 높고 깊고 그윽하고 험한 곳을 모조리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니 출입한 지 열흘 정도되어 이름난 산의 멋진 경치를 모조리 거뒀었으니 마음의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²⁸⁾

위의 인용은 ‘밭이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나서 멋진 경치를 모조리 거뒀을 여 마음이 즐겁다’ 정도로 정리된다. 1701년의 여행 경험은 권섭이 멋진 풍광을 직접 마주하며 느낀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 밭이 닿기 어려운 곳을 찾아나서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서너해 뒤의 <영삼별곡> 노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1740년에 이르면 금강산 유람 경험에 대해 “곳곳에 위험이 뒤따랐는데 그곳에 반드시 기이한 경관이 있었다”²⁹⁾라고 위험과 기이의 관계에 대해 확신하기까지 한다. 곧 <영삼별곡>의 험한 노정에서 발견한 멋진 풍경에 대한 감탄은 험한 노정에서 멋진 풍경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이전 경험으로 형성된 기대가 충족된 행복감의 표출인 것이다.

셋째, 눈앞에 마주한 실풍경으로 인해 기대 지평이 전환되는 놀라움이다. 유기(遊記)류, 읍지, 지리지 등을 읽고 타인의 여행 경험을 들으며 형성된 기대 지평은 의식의 영역에 한한다. 아무리 상상력의 한계가 없더라도 상상력은 기존의 기억을 재료로 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실풍경의 체험은 의식에 갇힌 상상력의 한계를 넓히는 경이로운 경험으로 작동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실경 중시 의식’으로 규정되어 권섭의 여행 성격을 관통하는 핵심으로서 탐승, 심미의식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졌다. 실경 중시 의식은 실경을 꿰뚫히게 묘사하려는 지향에 머물지 않고 물상 혹은 세계와 신체와의 만남이라는 경험, 곧 신체로서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실체

28) “凡高深幽險，無不極探窮討，出入十餘日之間，名山勝致盡收，而有之其胸中之樂，爲如何哉!” 권섭, <화양속리선승기>, 『옥소집』 권8, 23장 뒤쪽.

29) “到處躡危，必有奇觀.”, 『질남록(荊南錄)』, 『유행록』 권3(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앞의 책, 309쪽).

험을 중시하는 의식이다.

실체험의 중시는 대상에 대한 관습적이고 의식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 속에 펼쳐지는 물상 혹은 세계를 중시하는 지향을 형성한다. 1709년에 여행하는 동안 동해안에서 일출을 본 경험을 서술한 아래 인용에서 실체험이 중시되는 의식이 잘 포착된다.

정 문청공(鄭文淸公; 정철-필자)의 <관동별곡>에, ‘일출을 보러 한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육룡이 떠받쳐내는 듯 처음 바다 밑에서 나올 때에는 온 세상이 화려하게 일렁이더니, 이윽고 하늘 위로 떠오르니 터럭을 셀 만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늘 내가 본 것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온하여, 돌아와서 본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에, 선배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또한 모두 <관동별곡>에서 말한 바와 같았다.

저들이 보고 생각한 것은 바람과 물결에 출렁거렸으므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 것이 바로 일출의 참모습임을 알았으나, 다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바람 불고 물결치는 날에 일출을 보고서 누가 옳은지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다만 해가 바다 위로 나오는 것은 하늘이 밝아진 뒤에나 있는 것이니 사람들이 보는 것과 견주어 보면 조금 빠르는데, 저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³⁰⁾

권섭은 위의 인용에 앞서 일출 광경을 서술한 후에 송강의 <관동별곡> 일출 진술 부분과 비교한다. 당시 여행에 동반한 사람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지만 동반자들은 권섭이 본 일출 광경을 믿지 않고 <관동별곡>의 일출 형상을 믿는다. 이에 권섭은 선배들이 묘사한 일출 장면을 찾아 읽으니,

30) “鄭文淸公, <關東別曲>中有云: ‘爲看日出, 中夜起坐, 祥雲葱籠, 六龍擎出, 初離海底, 萬國爛熳, 俄昇天中, 毫髮可數.’ 今吾之觀, 極是從容穩籍, 歸來語之, 人人皆不信, 考之前輩之記, 亦皆如別曲所言. 彼其所見意者, 風濤所盪瀾, 故與此不同, 則信知今所見, 是日出之眞景象, 恨不復留幾日, 值風濤日, 見之以較勝負, 但日輪之出海上, 在天明後, 比人間之觀, 差早, 彼中夜起坐者, 何謂?”, <자득록(自得錄)>, 『유행록』 2(위의 책, 번역 42~43쪽; 원문 전사 55쪽).

그 묘사가 모두 <관동별곡>과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며칠 동안 머무르며 기상이 다른 날의 일출 풍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인용한 서술에서 다음의 둘이 포착된다. 하나는 개인의 실제 체험을 중시하는 의식이요, 다른 하나는 물상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인식이다.³¹⁾ 이 둘의 기저에는 변화하는 세계와 그것을 마주하는 신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있다.

실체험의 중시라는 점에서 <영삼별곡>은 선행하는 <관서별곡>, <관동별곡>이나 후행하는 <단산별곡>과는 다른, 기행가사로서의 면모를 지닌다. <관서별곡>은 관서의 주요 여행지를 다소 나열적으로 진술하는 작품이다. <관동별곡>은 관동에 이르기 전까지의 노정을 나열적으로 진술하다가 관동으로 넘어가는 금강산부터 경물에 촉발된 감흥을 진술하는 작품이다. <단산별곡>은 단양의 관습화된 승지 유람을 재현하는 듯한 진술을 취하는 작품이다.³²⁾ 세 작품에 비해 <영삼별곡>은 여행지의 나열보다는 구체화된 여행 체험과 그 감흥이 중시된다. 이 점은 관유로 대표되는 관습화된 유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비관습적인 노정을 선택하고 그 경험을 기행가사의 관습에서 일정 벗어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던 데에는 실체험을 중시하는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겠다.³³⁾ 이는 선행연구에서 <영삼별곡>을 분석해 찾아낸 자연 인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영삼별곡>은 우연과 비관습이 자아낸 여행의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 된다. 권섭은 서사의 여행 상황을 우연으로서 극화하고 본사의 진술을 실체험으로 인해 기대 지평이 전환되는 즐거

31) 본고에서 분석하지 않은 청옥산 유람 진술 부분에서도 고적 차체에 대한 관심보다 여행을 직접 경험하며 보고 느낀 감흥을 진술하는 데에 놓여 있다.

32) 이승준, 「<단산별곡(丹山別曲)>의 창작 맥락과 전승 동인」, 『한국시가연구』 56, 한국시가학회, 2022.

33) 유정선은 <영삼별곡>에서의 실경 대두를 “산수를 직접 목도하면서 느끼는 지취”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유정선, 앞의 책, 59쪽).

움에 초점을 두고 결사에서 본사에 표현된 즐거움에 호방과 자유로움의 가치를 부여해 <영삼별곡>을 창작했다. 이 작품에는 관유로 대표되는, 관습적 노정을 중심에 두는 유람을 여행과 차별지어 긍정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곧 <영삼별곡>에서, 명승이나 역사적 장소에 방문해 지식을 확인하려는 의식보다 현존하는 신체와 마주하는 물상과 관계를 맺으려는 의식을 중시하는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점에서 <영삼별곡>은 ‘실체험으로서의 여행이 지니는 가치를 긍정하는 노래’라고 정리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행가사 <영삼별곡>에 형상화된 감흥의 실체를 분석해 주제와 창작 의식에 접근하려는 데에 있었다. <영삼별곡>은 권섭이 1704년 한식이 갓 지난 때에 제천을 출발해 영월을 거쳐 삼척에 이른 여행 체험 가운데 영월에서 삼척, 삼척 관내 체험을 중심 소재로 삼아 창작한 가사 작품이다. 연구 주제를 착상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둘이었다. 하나는 <영삼별곡> 서사에 진술된 여행 출발 상황이 실제 상황과 상이하다는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탐승의 시선이 작품 본사에 지배적이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영삼별곡>을 비롯한 권섭이 지은 시문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탐승, 탐문 등에 견인되지 않으려고 작품 분석 자체에 충실하고자 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는 각각 서사, 본사, 결사의 분석에 집중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는 1704년 여행 체험 그대로가 아니라 1701년 속리산 여행 출발 체험도 활용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극화된 진술이었다. 본사는 탐승보다는 관습적인 여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마주한 놀라움에 대한 진술이 중심이 되었

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예상치 못한 환대에 느낀 감사, 낯선 장소에서 느낀 긴장과 이완, 눈앞에 마주한 실풍경으로 인해 기대 지평이 전환되는 놀라움이다. 곧 <영삼별곡> 본사에는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촉발된 감흥이 선별되어 형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함’은 시상 전개상 서사의 우연한 출발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결국 결사에 이르면, 실체험으로서 여행의 가치를 긍정하는 시선에서, 이백의 삶을 바탕에 두고 산림(山林)과 호해(湖海)를 두루 다니며 자유롭고 호방하게 살아가겠다고까지 선언하며 서사에서 제기되어 본사에 전개된 시상이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영삼별곡>은 관습보다는 현실, 관념보다는 체험, 정신보다는 신체를 중시하는 의식이 작동된 작품이다.

1704년 여행이 <영삼별곡> 노정에 그치지 않고 삼척 관아에 머칠을 머문 후에 소백산 일대를 여행하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섭은 영월에서 삼척에 이른 체험과 삼척 관내를 두루 돌아다닌 체험만을 따로 떼어 <영삼별곡>을 지었다. 나아가 여행가라는 정체성으로도 평생을 살아간 권섭이 남긴 기행가사로는 <영삼별곡>만이 유일하게 현전한다. 이러한 의문은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이 권섭에게 보낸 간찰에 수록된 칠언절구 한시 <산인의 ‘관동후곡’이 있다(山人有關東後曲)>³⁴⁾으로 다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작품 제목에서 옥소산인(玉所山人) 권섭이 <관동후곡>이라는 작품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내용 “하늘 높고 바다 넓은 죽서루, 열흘 동안 잔치에 두 백발노인. 기녀가 지금 부르는 새 악부, 관동후곡이 풍류를 퍼뜨리네.”(天高海闊竹西樓, 十日笙歌雙白頭, 女兒祇今新樂府, 關東後曲播風流)에서 기녀가 삼척 관아 죽서루에서 열린 잔칫자리에서 <관동후곡>을 가창했다는 상황이 포착된다. 여기에 더하여 ‘관동후곡’이 ‘관동곡의 뒷 곡’, 곧 ‘<관동별곡>

34) 권섭, 「간찰(簡札)」 1, 『옥소고(玉所稿)』.

의 전통에 따라 지은 노래'를 의미하므로 <관동후곡>은 우리말로 노래한 기행가사로 추론된다.³⁵⁾

<영삼별곡>이 삼척 관아의 잔칫자리에서 <관동별곡>을 대신하거나 그 뒤에 불린 장가(長歌)일 가능성이 높지만 <영삼별곡>은 가창곡으로서 그리 선호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아에서 불린 기행가사는 유람객을 주요 청자로 삼아 그들의 여행 환기와 감흥 고조를 목적으로 가창되곤 했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이 강릉, 고성, 원주 등의 관아에서 관동유람객을 주요 청자로 삼아 가창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관동후곡'으로 지칭된 <영삼별곡>도 삼척까지 유람을 온 청자를 대상으로 주로 가창되었겠다. 그런데 삼척까지 유람을 온 청자는 대개 금강산을 경유해 동해바닷길을 따라 통천에서 삼척이나 울진까지 남하하거나, 원주를 지나 삼척, 울진을 들렀다가 금강산으로 향하는 노정을 따른다. 이 점에서 <영삼별곡>은 청자의 여행을 환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영삼별곡>은 노정의 재현에 중심을 두고 감흥을 짧게 노래하는 작품도 아니었다.

<영삼별곡>이 삼척 관아의 악부로 창작되었지만 그리 선호되지 못했을 이유는 실제 청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이지만 이 때문에 <영삼별곡>은 시로서 지금에도 여전히 감상할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영삼별곡>에서 발견되는 실체험의 중시는, 관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명승지 위주의 관습적 노정을 따르며 지식을 확인하려는 유람을 개인의 현실 체험에 방점을 두는 여행과 차별하려는 의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명 관광지에 갔다는 인증에 초점이 놓여 대상의 실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영삼별곡>은 여행의 진정(眞情)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체험을 중시하는 의식은 권섭의 작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섬세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35) 선행연구에서 이병연의 한시를 근거로 삼아 <영삼별곡>이 삼척 관아에서 가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최규수, 앞의 논문, 206쪽).

참고문헌

- 『옥소고(玉所稿)』(영인본).
『옥소집(玉所集)』(석인본).
『추명지(推命紙)』(옛길박물관 소장).

『옥소산록』(번역본; 이창희, 장정수 역, 다운샘, 2022).
『유행록』(번역본;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 리 머나먼 여행길』, 문경새재박물관,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누리집 전자영인 지도자료.
『광여도(廣輿圖)』(古4790-58).
『대동여지도』(奎10341).
『동여도(東輿圖)』(奎10340).
『삼척부지도』(奎10648).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영월지도』(奎10666).
『정선지도』(奎10659).
『조선지도(朝鮮地圖)』(奎16030).
『지승(地乘)』(奎15423).
『청구도(靑邱圖)』(古4709-21).
『청구요람(靑邱要覽)』(古4709).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41).

『기언(記言)』(한국고전번역원 번역; <https://db.itkc.or.kr>).
『백중력(百中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66-14; 전자영인자료; <https://nl.go.kr>).
『사고전서(四庫全書)』 전자판(CD-ROM).
『승정원일기』(누리집; <https://sjw.history.go.kr>).

강혜선, 「옥소(玉所) 권섭(權燮)의 기행시문(記行詩文) 연구」,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8, 259~287쪽.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40, 서울

- 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523~556쪽.
- 김현식, 「〈영삼별곡〉과 〈도통가〉를 통해서 본 권섭의 가사창작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205~230쪽.
-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7.
- 신경숙 외 7명,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 신현웅, 「옥소 권섭의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의 원전 비평」, 『국문학연구』 49, 국문학회, 2024, 37~62쪽.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 연구』, 역락, 2007.
- 이승준, 「〈단산별곡(丹山別曲)〉의 창작 맥락과 전승 동인」, 『한국시가연구』 56, 한국시가학회, 2022, 79~109쪽.
-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민족어문학회, 1993, 241~260쪽.
- 최규수, 「〈영삼별곡〉에 나타난 탐문의 특징적 형상화와 의미」,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203~227쪽.
- 최은숙, 「옥소 권섭의 『유행록』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과 유람의 의미」,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05~132쪽.
-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 -옥소 권섭의 산수 기행-」,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 155~180쪽.
- 홍성욱, 「권섭의 산수 유기 연구」,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75~115쪽.
- 황경일, 「玉所 權燮의 山水 散文 研究 :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Travel Experiences and Poetic Inspiration: Focusing on Gwon Seop's *Yeongsam-byeolgok*

Shin, Hyun-wo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Yeongsam-byeolgok*, composed by Gwon Seop(1671-1759).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essence of the poetic inspiration embodied in the work. *Yeongsam-byeolgok* is a Travel Gasa that captures the travel experiences of a journey departing from Jecheon, passing through Yeongwol, and arriving in Samcheok in 1704. A comparison between the prologue(Seosa) of *Yeongsam-byeolgok* and the actual travel records of 1704 reveals that the departure circumstances described in the narrative differ from the historical facts of the journey. This implies that *Yeongsam-byeolgok* should be analyzed by placing a greater distance between the author and the narrator than is typical for a standard Travel Gasa. This observation forms the core critical awareness that prompted this study. Accordingly, this research explores the underlying theme and the author's creative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travel experiences and poetic inspiration articulated in *Yeongsam-byeolgok*.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departure circumstances in the work from a factu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rologue of *Yeongsam-byeolgok*.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rologue is a dramatized construct utilizing not only the journey at that time but also previous travel experiences from 1704. Chapter 3 investigates the true nature of the poetic inspiration embodied in the main body (Bonsa). At the core of the main body lies the expression of joy derived from the unexpected, experienced along the unconventional route from Yeongwol to Samcheok. Chapter 4 synthesizes the findings of Chapters 2 and 3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Yeongsam-*

byeolgok as a cohesive poetic text, further approaching its theme and the author's creative consciousness. Through this, it is elucidated that *Yeongsam-byeolgok* is a song that affirms the value of travel as an actual lived experience.

Key Words 18th Century, Travel Gasa, Individual, Existence, Body

논문투고일: 2026.07.15.

심사완료일: 2026.08.07.

게재확정일: 2026.08.13.